

buddhanews.com

이 세상 사는 게 다 고정됨이 없는 것입니다

25면에서 계속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갔더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되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참자기는 참 일등이로구나.' 그러하고 나니까 허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몸뚱이를 누가 끌고 다니니까?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몸속에도 16억이라는 숫자 아닌 숫자가 나오는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6억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식 속에서 막 그냥 꽤 씩씩한, 남을 닮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원망하는 생각도 생기고 속상하는 생각도 생기고 뭐, 강도 질질 생각도 생기고 별일이 다 생기죠. 남을 악을 먹어서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말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려서 이 것도 하고 저 것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죽어서 사대가 흩어지면 수많은 구더기가 헤아릴 수 없이 생기듯이, 그냥 거기서 지네도 되고 독사도 되고 벌레도 됩니다. 그게 흩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차원으로 또 포함니다.

그래서 오간지옥이라는 게 뭐냐? 별레로 나서 이 흙속에서 다시 탄생 못하는 것이 바로 오간지옥입니다. 독사지옥이 뭐냐? 독사가 왜 가지고 다니는 다른 모습으로다가 화하질 못하는 게 독사지옥입니다. 우리가 딴 데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천당도 있고, 이 자리에서 승천도 하는 거고, 이 자리에 지옥도 있고, 바로 독사지옥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 독사지옥이 돼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독사가 되면 독사가 되는 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습이 있어서. 그런데다가 독사 엄마, 아빠가 새끼들을 오물오물하게 낳아 놓으면 그 엄마 아빠를 산 채로 뜯어 먹고 이 새끼는 삽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무섭게. 그래서 독사지옥이라 그러합니다. 아니 그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게 모두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모릅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그냥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죽어서 그렇게 그냥 내가 마음 쓴 대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근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이 카세트에다가 다른 노래를 또 넣으면 그 앞서의 노래가 없어지죠. 그와 같이 내 전자의 과거의 업이 있어서 그렇게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으면 앞서의 게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전부 선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자기를 돌보는 보현신이 됩니다.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보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식한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부부지간에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그저 속 안 씩이려고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화낼까 봐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아프면, 뭐 몸이 아파서 안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쓰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말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 믿는 것을 하나라도,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을 믿어와 그래도 거기다 의지를 하고 살지요. 네? 내가 죽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나 자체입니다.

그와 같이 대신해 주는 게 없습니다. 대신 죽어 주는 것도 없고, 대신 통 뉘 주는 것도 없고 바로 자 주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이 바로 무상한 길이지요. 무상한 길이라고 해서 허망한 길이 아니라 무상한 길입니다. 허망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는 이 동근이 진리 속에서 그대로 흘러 도는 겁니다. 헛바퀴 돌듯.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고통어리를 짊어지고 그렇게 열 쓰고 살아야만 됩니까? 이 고통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녀를 막론해 놓고, 늙고 젊고를 막론해 놓고 모두 말입니다. 그

이거는 나의 견해에서 말을 해서 틀릴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걸, 처음부터 모든 걸 놔버리는 데에만 목적을 뒀습니다. 나 주인공 하나를 세워 놓고선 모든 걸 일임시키고 놔 버리는 데에 목적이 돼 있었어요. 다 놔 버리고 이 몸까지도 다 그냥 놔 버리니까 그때서야 홀연히 그 완벽하게 나라는 게 서더라고요. 선 뒤엔 모든 게 이렇게 부딪치는 대로 의정이 그때에 나는 거죠. 이거는 모으지 않고는, 한데 모아서 내버리지 않고는 안 돼요. 지금, 그래, 그 과정부터 해야 돼요. 그걸 전부들 놓지 못하는 한은 주인공이 드러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주인공에다 놓는 자는 누군가.' 그러면 둘이 돼 버린다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해서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헛갈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아예 생기는 것마다 그냥, 나까지도 그냥 몰락 놔 버렸을 때에 나라는 게 뼈죽하게 나오는 겁니다. 나왔을 때 비로소 거기서 진짜 안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의정이 거기에서 불조, 인제 그때 가선 내가 정말 그렇게 의정이 나도 헛갈리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내 주인이 "저기 나가서 너 출취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춤을 추다가 생각하면 춘 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죽으로다가 이 몸뚱이를 춤을 추게 해 가지고 어떡하냐 불 양으로, 빠져나가나 못 빠져나가나 그거 보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춤추는 것도 남들한테 보이지 않게 춤을 춰도 될 거를 구태여 이 몸뚱이가 나가서 추는 거는 사랑 아니예요, 이게? 남 보기에 불상만 사납지, 그러니까 그것도 수치가 되니까 이 몸뚱이를 그렇게, 즉 말하자면 인형 놀리듯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벌써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걸 커버해서 넘어가야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들어가면 앞서 말한 것처럼 미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 본다면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프는데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합시다. 이거 먹지 말라고 먹지 않습니까, 배는 고프는데? 그러면 이 먹지 말라는 것도 너고 먹어야 한다는 것도 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 이겁니다. 이게 커버하는 겁니다. 절대 돌로 보면

그거 커버시키기 위해서 우정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도 해라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돌로 뒤서는 안 됩니다. 시키는 게 따로 있고 내가 하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이게 지금 시키는 게 따로 있고 이게 내가 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돌로 두면 이게 잘못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행하셔야 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이유

답) 제가 선원에 온 지가 한 9개월 정도 되는데요. 언제부턴지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벌써때 삼귀의나 청법가, 산회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옆에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은 엄숙한 자세로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저만 그렇게 흐느끼고 울 수도 없어서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리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 네, 전자에 이런 공부 좀 하신 거죠. 누구나 다 사람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전자에, 딱의 몸을 가지고 나오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거를 정신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그 이치를 들으니깐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당신 자체는 몰라도 자기 주인공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면서도 속으로 흥겹고 흐느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택에서 지금 찾고 있는 그 장본인이죠.

'죽으면 우리가 뭐 하나?' 이러지마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오고, 그 차원에 따라서 사람을 모두 다스리고 부리기도 하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해서 나오는 대통령도 있지만, 부모들이 아주 정성을 지극하게 해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정성으로 자식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와 모든 것을 좀 돌아다볼 줄 알아야만 또 뒤가 길죠. 그렇지 못하면 뒤가 없어요, 뒤가 짧아요.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도리를 알아서 그저 못사나 잘사나, 먹으나 못 먹으나 주인공에 보좌요. 이파리 하나도 뿌리에 달려 있지 않은 게 없듯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 마음, 그 뿌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주어진 거니까 그 주어진 데다가 도로 인력을 하면 그 인력된 자체의 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니깐 너무나 감격하고 감개무량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그저 울어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우세요. 우는 건 택에서 우는 게 아니라 눈만 빌려 주고 마음만 빌려 줬을 뿐이에요.

스스로 정말이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주를 다 집어삼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런데 늙었다고 공부 안 하고 젊었다고 안 하고 학교 다닌다고 안 하고 장사 다닌다고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어이구, 바빠서 죽을 날도 없겠네요. 그러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쓰러질 땀 속수무책이예요. 그러니 이 도리를 배우라고 내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잠원 의정을 갖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답) 공부를 하다 보니 주인공에게 일임한다 하면서도 또 일임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고 의정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헛갈립니다. 잠원 의정을 갖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답)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해서 안 됩니다. 처음에 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놔 버려라 하느냐 하면, '주인공에다 일임해라' 하는 건 그거는 내가 의정 나게끔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완벽하게 이렇게 맡고 들어가는 작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매사 거를 이렇게 다 주인공에다 놔 버려야 그때 가서 하나가 완벽하게 설 때 의정이 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과묵이러니까요. 첫째 내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로 그냥 뭉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 의정이, 대의정이 나오는 겁니다.

러니까 그런 데 헛갈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 공부하는 데는 무조건,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생각지도 말라 이겁니다. 몰락 그냥 놔 버리는 데만 치중하라 이거죠. 매사 게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믿고 들어왔을 때 다 놔 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놔 버렸을 때에 '나'가 풀락 나오고 '나'가 나왔을 때 의정이 나는 거지, 사랑으로 의정을 내서는 천날 백날 해야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속에서 자꾸 뭔가 시키는데...

답) 놓는 공부를 하다 보니 마음속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 보라고 시키는데 영똥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예가 있어요. 난 이 날까지 노예 생활을 했노라고요. 그래서 그 소릴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깐 공부할 때 그때에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굳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태의 신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자신이 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안 되죠. 먹지 말라는 놈하고 먹는다는 놈하고 돌로 보면 안 돼요. 먹는다는 놈도 너고 먹지 말라는 놈도 너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겠어.' 하고 먹는 거죠. 또 내가 속에서, 저기 나가서 따 따부파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다고 나가서 내가 웃을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안 하죠. 그것이 커버하는 겁니다.

또 '공부하지 마라' 그러더라도 '아, 나는 공부 해야겠어.' 하고 공부해야겠다 하는 마음과 공부하지 마라 하는 마음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인제 그때는 이 시키던 놈이 다 자기로 그냥 포함이 돼서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건 자기 마음대로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시킨다 할지라도 이게 나쁘게, 즉 말하자면 이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면 이거를 커버해서 내가 이렇게 조절해서 가는 것도 바로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뭘 뜻하는 거냐 하면 내가 지금 열 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치 커버할 수 있나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건 노예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박지원(객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제25회不二賞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의 앞날을 이끌어 갈 학자와 자비행의 실천에 앞장 서 오신 분을 대상으로 불이상을 제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합니다. 불교발전을 위해 정진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상분야

가. 연구분야

최근 수년간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여 왔으며 장차 한국 불교학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가진 자.

나. 실천분야

불교인 혹은 불교단체로서 신행과 포교에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

시상규모 각 분야별 1명 2,000만원

후보자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 (본회 소정양식)

나. 이력서 (사진 첨부)

다. 업적을 증명하는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라. 추천서 (대학총장, 대학원장, 기타 불교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역대 불이상 수상자)

접수방법

e-mail 서류접수 (단, 이메일 전송이 불가능한 대표 업적물만 우편접수)

접수마감 2010년 4월 20일까지

수상자발표 불교계 언론매체

접수처 및 문의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불이상 담당자 ☎ 02)2014-6616
이메일 jilee3614@gmail.com

不二會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